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김효심* 노명희**

〈 목 차 〉	
I. 서 론	1. 연구대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검사도구
2. 연구문제	3. 연구절차
II. 이론적 배경	4. 자료처리
1. 애착이론	IV. 결과 및 해석
2. 애착의 측정방법	V. 논의 및 결론
3.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참고문헌
III. 연구방법	* 영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 갖는 정서적 유대인 애착(attachment)은 아동기 초기에 형성되는데, 이러한 애착을 토대로 하여 아동은 자신이 속한 세계의 본질, 특성, 그 안에서 기대되는 행동, 그리고 자아를 구성하게 된다(Bowlby, 1969). 최근에는 애착의 개념을 생의 초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평생을 통해 계속 형성, 유지되는 것이라는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Bretherton, 1987).

초기 애착연구에서는 낮가림이나 격리불안을 애착의 한 지표로 삼았는데(Ainsworth & Bell, 1970; Bowlby, 1969),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아동기를 대상으로 애착의 발달이나 유형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Kllagsbrun-Bowlby(1976) 등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애착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동기 애착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을 한 이유로 들 수 있다.

* 제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조교수
**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애착형성에 있어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요시한 Ainsworth (1982)에 의하면 애착은 미리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영아와 어머니간의 안정된 애착은 어머니의 민감하며 반응적인 양육행동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Belsky et al. 1984; Smith & Pederson, 1988). 그러나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범실, 1987)에서는 유아기에는 영아기와 달리 유아의 요구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오히려 지나친 관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청년기를 대상으로 애착을 평가하고자한 Armsden과 Greenberg (1987)의 연구에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문항들에는 신뢰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의 행동발달을 설명하는 많은 연구들에서 애정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한 결과들(Howes & Hamilton, 1992; Smith & pederson, 1988; 고경애, 1984; 노명희·이숙, 1991)을 참조해 볼 때, 아동기의 애착에 관련된 양육행동변인으로 '민감성'보다는 '애정'과 '신뢰'의 두가지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Bowlby (1969, 1982)에 따르면, 영아는 사람 및 세계와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있는 사람과 세계에 대해 내적 작용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한다고 한다. 내적 작용모델에 근거해 이루어진 연구들(Epstein, 1983; Main, Kaplan, & Cassidy, 1985)에 의하면 부모의 아동기 애착 경험은 출산가족 자녀와의 애착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양육자와의 초기 애착 경험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후에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애착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으며(LaFreniere & Sroufe, 1985), 부모의 교육수준은 유아의 애정적 유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원영, 1987). 이러한 결과들은 거의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동기 애착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를 대상으로 애착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 그리고 가정환경변인들(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기 애착 경험,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에 따른 아동의 애착유형을 알아봄으로써 아동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1. 아동기 애착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 그리고 가정환경변인들(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기 애착 경험,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서 아동기 애착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애착이론

애착관계 개념에 관한 연구는 Bowlby와 Ainsworth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애착이란 용어는 Bowlby가 영아와 어머니와의 유대 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초로 사용한 개념으로, 애착이란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유지하려는 행동, 혹은 그 접근이 손상되었을 때 회복하려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단순히 애착대상에 의존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애착대상이 심리적인 안정기지가 되어서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게 해주는 마음의 보루로 작용하여 영아가 주위환경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Bowlby(1969)는 애착은 개체가 주위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하였으며, 어머니와의 애착이 일단 형성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성인기까지 지속된다고 지적하였다. 애착에 관한 여러 연구자들(Ainsworth & Bell, 1970;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은 Bowlby의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였다. 특히 Ainsworth 등(1978)은 Bowlby(1969)의 이론을 보다 정교화하고 확고히 하면서 애착은 사람이나 동물이 자신과 다른 특정한 개체 사이에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이고 이러한 유대관계는 시간이나 공간을 넘어서 지속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유아의 애착행동에 대해 주로 관심을 보였지만, 점점 애착관계를 아동기, 청년기를 지나 전생애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경향이라고 하겠다(Ainsworth et al., 1978; Bretherton, 1987).

Ainsworth는 애착은 영아 특정 개인에 대해 형성하는 애정적 유대(Ainsworth, 1969)라고 정의하였으며, 계속된 연구들(Ainsworth, 1972; Ainsworth et al., 1978)을 통해 애착과 애착행동을 구분하였다. 영아와 애착대상간의 이러한 유대는 처음에는 애착행동을 통해서 형성되며 이후에는 애착대상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Ainsworth et al., 1978).

Bowlby(1969)에 의하면 유아가 양육자와 가까이하고자 하는 애착행동은 양육자와 가

까이 있음으로서 안정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유아기의 안정감은 유아가 필요시 애착대상에게 언제나 가까이 갈 수 있고, 애착 대상이 자신의 요구에 언제나 반응해 줄 것이라는 신뢰감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Ainsworth와 Bell(1970)은 ‘안정기지(secure base)’ 현상을 설명하였는데, 어머니와 애착이 잘 이루어진 영아는 어머니를 안정기지로 삼고 어떤 새로운 설정목표를 향한 탐색행동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는 영아가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위를 탐색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기지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Bowlby(1969, 1982)는 물리적 세계 및 인간 세계와의 상호 과정에서 개인은 세계에 대한 내적 작용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구성한다고 제안하였으며, 후속 연구들(Bowlby, 1973, 1980)을 통해 내적 작용모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Bowlby(1973, 1980)에 따르면 자아와 애착대상에 대한 내적 작용모델은 개인간의 상호 교환관계에 기원하기 때문에 밀접한 상보성 내에서 발달한다. 예를 들어 애착대상으로부터 거절을 자주 경험하는 아동은 자아의 내적 작용모델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형성하며, 양육대상으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경험하는 아동은 자아의 내적 작용모델을 유능하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내적 작용모델은 일단 구성되면 이것을 토대로 개인이 사건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구성하는 것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아와 애착대상을 표상(representation) 하는 내적 작용모델의 구성을 연속적인 과정이다(Bretherton, 1987).

Klagsbrun-Bowlby(1976)의 격리불안검사에서는 내적 작용모델에 기초하여 어머니와의 격리상황시 아동의 감정과 행동을 가지고 애착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을 정서적 유대를 포함한 차별적 관계, 즉 심리적 적응의 기반을 제공해주는 대상과의 애정적, 신뢰적 관계로 보고 내적 작용모델에 기초하여 격리상황에서의 반응을 가지고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여 측정하였다.

2. 애착의 측정방법

1) 애착검사도구

초기의 애착연구(Ainsworth & Bell, 1970; Bowlby, 1969)에서는 대체로 낯가림이나 격리불안을 애착의 지표로 보았는데, 낯가림이나 격리불안이 강하게 나타나면 곧 애착이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애착으로 인하여 낯가림이나 격리불안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Ainsworth와 Wittig(1969)는 영아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Bowlby의 동물행동학적/행동체계이론을 받아들여 이를 더욱

정교화하면서, 동시에 애착의 질에 있어서 개인차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을 고안하였다.

Waters와 Deane (1985)은 낯선상황검사가 영아기에만 사용가능하므로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려는 연구에 적합하지 못하고, 낯선상황검사에서 얻어진 자료가 양적인 자료가 아니라 분류적 자료이므로 다차원적인 평가를 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와같은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머니나 관찰자에 의해 실시될 수 있는 Q-sort 방법을 애착측정을 위해 개발하였다.

Main, Kaplan과 Cassidy (1985)의 유아기-아동기-성인기 애착표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실험실 관찰 방법이 소개되었는데, 한시간 가량의 격리상황에 이은 재결합상황에서 나타나는 애정적 대화주도, 상호작용, 접촉, 어머니에 대한 반응을 9점 범주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동일 대상에게 Klagsbrun-Bowlby (1976)의 격리불안 검사와 성인의 아동기 애착회상을 포함한 Berkely Adult Attachment Interview (George, Kaplan & Main, 1984)를 실행한 결과, 관찰에 의해 평가된 자녀의 애착 안정성과 격리불안 검사,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회상 간의 밀접한 관련을 보고하였다. Klagsbrun-Bowlby (1976)의 격리불안검사는 격리상황에서의 반응을 통해 정서개방성을 기준으로 감정을 측정하고, 내적 상(internal image)에 의해 행동을 측정하여 아동기 애착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여 물어보는 것은, 아동기에는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여 인지하는 바가 같을지라도 행동에 있어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검사도구는 여러번의 추후 연구 (Kaplan, 1984; Main, Kaplan, & Cassidy, 1985)를 통해 아동기 애착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서의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애착유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적 작용모델에 기초하고 있는 Klagsbrun-Bowlby (1976)의 격리불안검사를 참고로 문항 내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2) 애착유형의 분류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애착유형의 분류는 Ainsworth 등 (1978)의 ‘낯선 상황’실험을 이용한 분류방식이다. Ainsworth 등 (1978)에 의하면 영아의 애착 대상에 대한 애착유형을 안정애착(B), 불안정-회피애착(A), 불안정-저항애착(C)으로 분류한다. 안정애착(B)으로 분류된 영아는 재결합시 어머니에게 접근하려하고 어머니와의 접촉을 유지하려 하거나 어머니와 원거리에서 상호작용하려고 하지만 어머니에게 저항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반면, 불안정-회피애착(A)으로 분류된 영아들의 행동특성을 보면 어머니와의 재결합시 어머니에게 접근추구나 접촉유지행

동을 나타내지 않고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거나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는 형태로 어머니를 회피한다. 불안정-저항애착(C)으로 분류된 영아들은 재결합시 어머니에게 접촉하려 하면서 동시에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저항하는 양가감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세가지 애착유형으로 분류된 각각의 유형들은 다시 몇개의 하위집단으로 세분되어진다. 즉 B유형은 B1, B2, B3, B4로, A유형은 A1, A2의 두 하위집단으로, 그리고 C유형은 C1과 C2의 두 하위집단으로 분류되어진다.

이외에도 Main과 Solomon(1990)은 낮선상황에서 영아들의 행동이 뚜렷한 목표가 없고,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D유형을 애착유형분류에 포함시켜서 애착유형의 분류를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3.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먼저 애착에 대한 관련변인 중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에 관해서는 일치되지 않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애착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나(Beckwith, 1972; LaFreniere & Sroufe, 1985; Park & Waters, 1989), 성별에 따라 유아의 애착이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었다(Londerville & Main, 1981; Turner, 1991). 우리나라에서도 국민학교 1, 2,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차를 보고하지 않았다(김영지, 1994).

또 출생순위에 대한 연구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지 않았다(이영환, 199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애착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민감성이 영·유아의 애착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정애착아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접근을 허용하며 일관되게 반응하며 민감한 반면, 불안정-회피 애착아의 어머니들은 간섭이나 과잉자극을 보이고, 불안정-저항 애착아의 어머니들은 무관심하고 비일관적인 상호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Cox, Owen, Henderson, & Margand, 1992; Howes & Hamilton, 1992; Isabella & Belsky, 1991; 고경애, 1984; 이영환, 1993).

Kobak과 Sceery(1988)는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녀의 신호에 대한 부모의 반응 중에서 어려움을 적절하게 해결해 주거나 애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안정된 애착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나타내는 양육행동이나 반응들이 적절할수록 자녀는 어머니에게 신뢰감을 형성하여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반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애착유형에 있어

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ohn, 1990; Turner, 1991).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원영, 1987)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온정적으로 나타나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애정적인 유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에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애착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민감성, 애정적인 행동 등 의 적절한 반응이 유아의 안정된 애착성향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같은 연구결과들은 아동기보다는 영·유아기에 집중된 것이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3개 국민학교 1, 2, 3학년 아동 301명과 그들의 교사 8명으로 하였는데, 8개 학급에서 거의 모든 아동이 포함되었다. 실제 분석에서는 불성실한 응답을 기재한 경우 및 무응답을 제외한 272명의 자료만이 이용되었다.

2. 검사도구

1) 아동용 애착검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Kllagsbrun-Bowlby (1976)의 격리불안 검사(Separation Anxiety Test)를 참고로 하여 「아동용 애착 검사」 도구를 제작하였다. Kllagsbrun-Bowlby (1976)의 도구를 기초로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평가되는 문항들을 수정하고 분류방식을 세분화하여 4개 문항으로 된 검사도구를 구성하였다. 4개 문항에 관한 그림카드로 되어 있으며 이는 응용미술을 전공한 이에게 의뢰하여 남아와 여아용으로 각 문항 1쌍씩 총 4쌍의 그림카드가 제작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성된 「아동용 애착 검사」를 국민학교 1, 2, 3학년 50명에게 실시해본 결과 4문항에 대한 계수는 격리시 감정은 .70, 행동은 .72로 나타났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감정은 $r = .68$, 행동은 $r = .87$ 로 나타나서 「아동용 애착 검사」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를 포함한 평가자 2인간의 일치도는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감정 1.0, 행동 1.0으로 100%의 일치도를 보였다. 「아동용 애착 검사」의 실시는 1:1의 면접법으로 하였는데, 면접시간은 아동 1인당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검사도구는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들에게 적합한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Epstein, 1983; 이숙, 1988)에 관한 문항들을 참고로 하여 어머니의 애정적인 행동에 관한 5개 문항과, 신뢰에 관한 5개 문항으로 된 총 10문항을 제작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검사도구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검사도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질문지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검사도구를 가지고 국민학교 1, 2, 3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육행동의 신뢰도계수를 구하기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각 .77(애정요인), .60(신뢰요인)으로 나타났다. 최종분석에서는 애착유형1과 2를 보인 아동들의 양육행동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여(애정요인 : $M=16.18$, $SD=3.38$, 신뢰요인 : $M=15.38$, $SD=3.15$) 상·중·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3)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졌던 자신의 어머니와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척도는 Epstein(1983)이 제작한 부모-또래 척도(MFPS)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을 묻는 척도는 어머니에 대해 (1)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 13문항, (2) 수용 대 거부 차원 10문항, (3) 부모 이상화 차원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조사 결과 Cronbach의 계수는 (1)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 10문항, (2) 수용 대 거부 차원 8문항, (3) 부모 이상화 차원 5문항에 대해서 각각 .75, .67, .66으로 나타나 총 23개 문항을 그대로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최종분석에서는 애착유형1과 2를 보인 아동들의 양육행동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여(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요인 : $M=28.84$, $SD=3.91$, 수용 대 거부 요인 : $M=22.65$, $SD=3.17$, 부모 이상화 요인 : $M=14.04$, $SD=2.31$) 상·중·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1차 예비조사(1994. 5. 4 ~ 1994. 6. 11)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용 애착검사」 및 각 검사도구(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양육행동)의 내용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4명의 아동학 전공교수와 10명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의뢰하여 질문내용을 검토받았다. 그리고 국민학교 1, 2, 3학년 아동 10명과 국민학교 1, 2, 3학년 교사 10명에게 검사문항의 적합성 및 이해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2차 예비조사(1994. 6. 15 ~ 1994. 6. 23)는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를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또 실시시간을 포함한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1994년 7월 4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아동용 질문지와 면접은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자 및 보조연구자(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아동학 전공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검사의 실시 시간은 질문지의 경우 약 10분, 면접의 경우 아동 1인당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r), Cronbach의 계수, 카이 검증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아동기 애착유형

본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애착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격리시 감정 점수와 행동 점수에 따라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표 1>참조). 여기에서, 격리시 감정 중 어머니가 밉고, 죽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인 '적대'범주와, 격리시 행동 중에서 어머니를 때리고 욕하는 등의 '극단'범주는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정상적인 애착반응이 아니며, 그 사례 수가 적으로 양적인 통계분석 절차에서는 제외시켰다. 따라서 아동기 애착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격리시 감정에서 '즐거움', '보통', '불안'의 3가지 범주에 응답한 경우와, 격리시 행동에서 '보냄', '저항', '대안'의 3가지 범주에 응답한 경우를 가지고 애착유형분포를 알아보는데 사용하였다. 격리시 감정의 분류 기준은 8-10점은 '즐거움', 11-13점은 '보통', 14-16점은 '불안'의 범주로 구분하였고, 격리시 행동의 분류 기준은 8-10점은 '보냄', 11-13점은 '저항', 14-16점은 '대안'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격리시 감정의 세가지 범주와 격리시 행동의 세가지 범주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애착유형은 이론적으로는 모두 9가지 유형이 될 수 있으나 6가지 유형만이 실제로 나타났다(<표 2>참조). 이 6가지 유형 중에서도 대표적인 유형은 두가지로 나타났는데, 1) 격리시 감정이 '불안'이면서 행동이 '보냄'인 경우(유형1), 2) 격리시 감정이 '불안'이면서 행동이 '저항'인 경우(유형2)이다. 애착유형1과 2는 같은 비율(각각 46.12%)로 분포되었고, 두가지 애착유형 모두 격리시 감정이 '불안'인 경우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와의 격리상황에 대해 불안으로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아동들(92.24%)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1〉 격리시 감정과 행동의 분류기준

점 수	격리시 감정	격리시 행동
8~10	즐거움	보 냄
11~13	보 통	저 항
14~16	불 안	대 안

〈표 2〉 애착유형의 분포

유 형	격리시 감정	격리시 행동	N (%)
1	불 안	보 냄	113(46.12)
2	불 안	저 항	113(46.12)
3	불 안	대 안	12(4.90)
4	보 통	보 냄	4(1.63)
5	보 통	저 항	1(.41)
6	즐거움	보 냄	2(.82)
계			245(100.00)

2.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 그리고 가정환경변인들(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기 애착경험,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애착유형

이 후의 분석에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난 두 애착유형(유형1, 유형2)에 속하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에 따른 애착유형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애착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2(chi) 검

〈표 3〉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에 따른 애착유형

N (%)

집 단	유 형 1	유 형 2	계	χ^2
성	남	51(49.04)	53(50.96)	104(100.00)
	여	62(50.82)	60(49.18)	122(100.00)
출생순위	첫 째	54(51.43)	51(48.57)	105(100.00)
	둘째이하	54(50.00)	54(50.00)	108(100.00)
	외 동 이	5(38.46)	8(61.54)	13(100.00)
전 체	113(50.00)	113(50.00)	226(100.00)	

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애착유형은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참조).

2) 가정환경변인(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기 애착경험,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애착유형

가정환경변인(어머니 양육행동, 아동기 애착경험,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의 애착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chi) 검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애정'요인, '신뢰'요인)과 아동기 애착경험('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요인, '수용 대 거부'요인, '부모 이상화'요인)은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하여 상, 중, 하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신뢰'요인에 따른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즉,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일수록 유형1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낮은 집단일수록 유형2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은 애정과 신뢰를 근거로 하여 형성된다는 종래의 연구결과들(Ainsworth & Wittig,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애착유형 N (%)

	집 단	유 형 1	유 형 2	계	χ^2
'애정'	상(20점)	24 (53. 33)	21 (46. 67)	45 (100. 00)	2. 40
	중(14-19점)	66 (46. 48)	76 (53. 52)	142 (100. 00)	
	하(5-13점)	23 (58. 97)	16 (41. 03)	39 (100. 00)	
'신뢰'	상(19-20점)	29 (72. 50)	11 (27. 50)	40 (100. 00)	***
	중(13-18점)	69 (47. 26)	77 (52. 74)	146 (100. 00)	
	하(5-12점)	15 (37. 50)	25 (62. 50)	40 (100. 00)	
	전 체	113 (50. 00)	113 (50. 00)	226 (100. 00)	

*** p<. 001

5)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경험에 따른 애착유형 N (%)

	집 단	유 형 1	유 형 2	계	χ^2
'독립성 조장'	상(33-40점)	20 (58. 82)	14 (41. 18)	34 (100. 00)	1. 41
	중(26-25점)	73 (47. 71)	80 (52. 29)	153 (100. 00)	
	하(8-20점)	20 (51. 28)	19 (48. 72)	39 (100. 00)	
'수용'	상(26-32점)	17 (45. 95)	20 (54. 05)	37 (100. 00)	1. 32
	중(21-25점)	67 (48. 55)	71 (51. 45)	138 (100. 00)	
	하(8-20점)	29 (56. 86)	22 (43. 14)	51 (100. 00)	
'부모 이상화'	상(16-20점)	26 (50. 98)	31 (49. 02)	57 (100. 00)	. 64
	중(12-15점)	71 (51. 08)	68 (48. 92)	139 (100. 00)	
	하(5-11점)	16 (53. 33)	14 (46. 67)	30 (100. 00)	
	전 체	113 (50. 00)	113 (50. 00)	226 (100. 00)	

1969; Ainsworth et al., 1978; Armsden & Greenberg, 1987; Kobak & Screey, 1988)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애정보다 신뢰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아동의 애착유형은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경험에 따라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참조). 즉 부모의 아동기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한 내적 작용모델이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Bowlby(1969, 1982)의 관점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참조).

〈표 6〉 부모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의 애착유형 N (%)

	집 단	유 형 1	유 형 2	계	χ^2
부의 교육수준	대학원 졸업이상	11(55.00)	9(45.00)	20(100.00)	
	대학교 중퇴 및 졸업	39(44.83)	48(55.17)	87(100.00)	.62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52(52.00)	48(48.00)	100(100.00)	
	중학교 중퇴 및 졸업이하	11(57.89)	8(42.11)	19(100.00)	
모의 교육수준	대학교 중퇴 및 졸업	30(52.63)	27(47.37)	57(100.00)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61(47.29)	68(52.71)	129(100.00)	.63
	중학교 중퇴 및 졸업이하	22(55.00)	18(45.00)	40(100.00)	
소득수준	201만원 이상	21(52.50)	19(47.50)	40(100.00)	
	121만원~200만원	46(49.46)	47(50.54)	93(100.00)	.39
	81만원~120만원	30(44.12)	38(55.88)	68(100.00)	
	80만원 이하	16(64.00)	9(36.00)	25(100.00)	
	전 체	113(50.00)	113(50.00)	226(100.00)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애착유형을 조사하고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 그리고 가정환경 변인들(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기 애착경험,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의 애착유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애착유형은 어머니와의 격리시 감정과 행동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① 격리시 감정이 '불안'이면서 행동이 '보냄'인 경우(유형1), ② 격리시 감정이 '불안'이면서 행동이 '저항'인 경우(유형2), ③ 격리시 감정이 '불안'이면서 행동이 '대안'인 경우(유형3), ④ 격리시 감정이 '보통'이면서 행동이 '보냄'인 경우(유형4), ⑥ 격리시 감정이 '보통'이면서 행동이 '저항'인 경우(유형5), ⑦ 격리시 감정이

'즐거움'이면서 행동이 '보냄'인 경우(유형6)이다. 이 6개 유형 중에서도 주요한 유형은 2개로 나타났는데, 격리시 감정이 '불안'이고 행동이 '보냄'인 유형(유형1)과 격리시 감정이 '불안'이며 행동이 '저항'인 유형(유형2)에서 가장 많은 분포(각각 46.12%)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포함된 아동들이 나타낸 대표적인 두가지 애착유형이 모두 격리시 감정이 '불안' 범주로 나타났는데, 격리 상황시 감정을 정서 개방성에 의해 평가하는 Klagsbrun-Bowlby(1976)도 불안 감정일 때 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Bowlby(1969)의 애착이란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유지하려는 행동, 혹은 그 접근이 손상되었을 때 회복하려는 행동이라는 정의에 비추어 볼 때도 어머니와의 격리상황에 대해 감정이 불안으로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아동들(92.24%)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둘째,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 그리고 가정환경변인들(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기 애착 경험,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먼저,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는 자녀의 성 별에 따라, 그리고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양육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부모자녀간 애착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이영환(1993)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에서는 '신뢰' 요인에 따라서만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아동은 격리상황시 감정이 부정적이지만 어머니를 보내지 않으려고 저항하기보다는 어머니를 보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의 애착형성에 있어 애정보다는 신뢰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보겠다. Bowlby(1969)의 이론에서도 아동의 안정감은 애착대상에 대한 신뢰감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애착유형을 형성한다고 보겠다. 이는 양육행동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의 결과(Ainsworth & Wittig, 1969; Armsden & Greenberg, 1987; Kobak & Screey, 1988)와 일치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에 따라서는 애착유형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모의 아동기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한 내적 작용모델이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Bowlby(1969, 1982)의 관점이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이는 안정되게 애착된 영아의 어머니들이 불안정하게 애착된 영아의 어머니들보다 그들의 부모에 대해 더 긍정적인 기억을 보고한 결과(Main, Kaplan, & Cassidy, 1985)와 일치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이영환(1993)의 결과와는 일

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의 아동들이 학령기에 속한 아동들이어서 어머니의 어렸을 때의 애착경험과 직접적인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어머니의 응답이 과거를 회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경험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는 점과,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측정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에 대해 설문지법이 아닌 면접법을 실시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Cohn, 1990; Turner, 1991)과 일치된 결과이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애정적 유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이원영, 1987)와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동기 애착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용 애착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한 주요한 애착유형은 두가지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와의 격리시 감정이 불안이지만 행동에서 어머니를 보내는 유형(유형1)과 격리시 감정이 불안이고 행동에서 저항을 하는 유형(유형2)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유형은 유아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세가지 유형(안정, 불안정-저항, 불안정-회피)과는 다른 두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두가지 유형이 모두 안정된 애착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아동기 애착유형 형성에 차이를 가져오는 양육행동은 어머니에 대한 '신뢰'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애착 자체가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심리적 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된다는 전통적인 이론(Ainsworth, 1969; Bowlby, 1969)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겠다.

따라서 주양육자인 어머니는 자녀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에 관한 일, 자녀의 격정거리 등에 대해 대화를 자주하고,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써,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또한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격리시 감정과 행동을 가지고 애착유형을 분류하는 데 사용한 격리상황이 실제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유형에 관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면접법을 실시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그림카드 이외에도 격리시 반응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적인 방법이나 어머니가 인지한 자녀의 애착행동을 측정하는 방법도 실시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빈도가 너무 낮게 나타난 애착유형들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난 두가지 애착유형만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빈도가 너무 낮게 나타난 애착유형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례수집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고경애(1984).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지(1994).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명희·이 속(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9(4), 181-206.
- 이 속(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환(1993). '낯선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원영(1987). 부모교육론. 서울 : 교문사.
- 박범실(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insworth, M. D. S. (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969-1025.
- Ainsworth, M. D. S. (1972). Attachment and dependency : A comparison. In J. Gewirtz(Ed.). Attachment and dependency. Washington, D.C. : Winston.
- Ainsworth, M. D. S. (1982). Attachment : Retrospect and prospect.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e(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New York : Basic.
- Ainsworth, M. D. S. & Bell, S. M. (1970). Attachment, exploration, and separation : Illustrated by the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41, 49-67.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 Elbaum.
- Ainsworth, M. D. S., & Wittig, B. A. (1969). Attachment and the exploratory behavior of one-year olds in a strange situation. In B. M. Foss(Ed.),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 4. London : Methuen.
- Armsden, G. C. & M. T. Greenberg(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eckwith, L. (1972). Relationships between infants' social behavior and their mothers' behavior. Child Development, 43, 397-411.
- Belsky, J. & Rovine, M., & Taylor, D. (1984).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d Development, 55, 718-728.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 N. Y. : Basic.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 Vol. 2. Separation. New York : Basic.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 Basic.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2d). New York : Basic.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Bretherton, I. (1987). New perspectives on attachment relation : Security, communication, and internal working models.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2d).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ox, M. J., Owen, M. T., Henderson, V. K. & Margand, N. A. (1992). Prediction of infant-father and infant-mother attach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74-483.
- Epstein, S. (1983). The mother-father-peer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Howes, C & Hamilton, C. E. (1992).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caregivers : Mothers and child care teachers. *Child Development*, 63, 859-866.
- Isabella, R. A., & Belsky, J. (1991). Interactional synchrony and the origi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 A replication study. *Child Development*, 62, 373-384.
- Kaplan, N., (1984). Internal representations of separation experiences in six-year olds : Related to actual experiences of sepa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 of California, Berkeley.
- Klagsbrun, M., Bowlby, J. (1976). Responses to separation from parents : A clinical test for young children. *British Journal of Projective Psychology*, 21, 7-21.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bak, R. R.,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aFreniere, P. J. & Sroufe, A., (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in preschool; intercorrelations between measures,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56-69.
- Londerville, S., Main, M. (1981). Security of attachment, compliance, and maternal training method in second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89-299.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in, M. & Solomon, J. (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121-160.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rk, K. A., Waters, E. (1989). Security of attachment and preschool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0, 1076-1281.
- Smith, P. B., & Pederson, D. R. (1988). Maternal sensitivity and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097-1101.
- Turner, P. J. (1991). Relation between attachment, gender, and behavior with peers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62, 1475-1488.
- Waters, E.,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 in infant attachment relationships :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Children's Attachment to Their Mothers And its Related Variables

Kim Hyoshim, Roh Myoung Hee

This study examined (i) children's attachment patterns, (ii) attachment patterns by children's sex, birth category, and family-related variables.

The investigation was made on 272 first to third graders of elementary schools and 8 of their teachers. Child rearing behavior, and maternal childhood experience were investigated for this study. Children were interviewed in order to assess the patterns of mother-child attachment.

The statistical procedure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conducted by the method of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ile, Pearson's r-coefficient, Cronbach's α -coefficient, and Chi 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ing :

1. When subjects were exposed to scenes of separation from mother, there appeared two major patterns of children's attachment : children in pattern 1 were anxious but they accepted the separation; those in pattern 2 were anxious and they resisted to the separation.
2. Among mothers' rearing behaviors, "reliance" factor was related to children's attachment patterns and childre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attachment patterns depending on the reliance on their mothers. Children in pattern 1 showed higher reliance on their mothers than those in pattern 2. No significant changes were found in attachment patterns according to children's sex, birth category, maternal childhood experience to her own mother, parents' education, income.